



△ 꽃이미지 - 서양화 아크릴 온 캔버스 / 김용환(미술학과) 교수

개교 59주년이 주는 의미

제주대학교가 개교 59주년을 맞았다. 내년이면 개교 60주년이다. 우리에게 9는 최고, 최대, 완결의 수로 자리잡고 있다. 바둑이든 정치든 9단을 최고수로 친다. 황룡사탑도 9층이었으며, 가장 큰 집은 99칸짜리였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기에 '아홉 수 넘기기 어렵다'는 속담까지 생겨나지 않았던가 싶다.

우리 제주대학교는 4·3과 한국전쟁으로 초·중등교육 등 제주지역 교

육기반 자체가 황폐했었던 1952년 5월 27일 문을 열었다. 4개 학과를 가진 초급대학이었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대임에도, 고등교육에 대한 제주도민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도립으로 개교가 가능했다. 이제 우리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 등 9개의 대학원, 11개 단과대학에 1만8천여 명이 재학하고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굽이굽이마다 개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도전과 응

한계를 넘어 한단계 도약을

전의 역사였다. 특히 지난 수년간은 교육개방과 국립대학 법인화 등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크나큰 결실을 거뒀다. 59년의 역사 동안 참으로 많은 일,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그것들을 축적해 왔다.

올해 개교 59주년의 아홉 수를 잘 넘겨야 한다. 아홉이 들어있는 이 해를 슬기롭게 마무리지어야 우리는 희망에 넘치는 개교 60주년을 맞이할

수 있다. 그것은 10년을 주기로 나아가 바뀌기 한 해 전에 맞는 생의 위기감을 일컫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대학이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생물학적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며 심호흡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지금까지의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제주대학교는 한계를 뛰어넘어 다시 한단계 도약하는 때가 된 것이다.

사설

명품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개교 59주년을 맞이하였다. 지금 우리 대학교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제주 지역사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고양으로 도약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대적 과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게 되고 말 것이다. 양적 성장이 과제였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배들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시대적 책임을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대학교의 규모, 우리 경제, 우리 사회의 위상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시대적 과제는 변경되었다. 과거의 문제의식, 과거의 방식으로 새로운 과제에 대응할 수는 없다. 이제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생명력마저 잃고 있는 화두인, 이른바 '선진화'가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무엇이 선진화이고, 무엇이 질적 고양인가, 그것을 양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GDP가 늘어난다고, 교수, 학생 숫자가 늘어난다고 선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품질은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품질의 평가기준이 주관적, 다원적이라고 해도 품질의 평가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수량적, 언어적으로

표시하지 못할 뿐 품질의 평가기준은 분명히 있다. 이른바 '명품'의 존재가 그것을 증명한다. '아우라'(Aura)라는 현상도 그것을 드러낸다.

대학의 품질은 얘기할 수 없는가, 일의적 기준을 말할 수 없지만, 교육 품질, 연구 품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량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품질로 관심을 돌리게 되면 새로운 가능성은 무한히 열리게 된다. 기준이 단일하지 않으므로 나름대로 다양성의 시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품질의 문제에 고통스러운 점도 없지는 않다. 그렇다고 품질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외면할 수도 없다. 시대가 이미 품질의 고양을 요구하고 있다. 양적 성장의 시대보다는 더욱 힘겨운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양적 기반이 이미 주어져 있고, 발전의 의지와 자신감도 우리에게 전해져 있다. 제주대학교만이 지니는 지역적 강점도 많다. 필요한 것은 문제의식과 실천적 노력이다. 그것 없이 명품 대학을 만들 수는 없다. 명품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개교기념일에 생각하는 대학

대학은 처음부터 경제적 직업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며,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곳은 더욱 아니다. 현대 대학은 중세에 유럽에서 생겨난 불로냐 대학(1088년 개교), 파리 대학(1167년 개교: 현재의 소르본느 대학), 옥스퍼드 대학(1167년 개교) 등을 전범으로 하여 발전했다. 대학(university)은 교육자와 연구자, 학생의 통일체(universe)를 의미했고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인정됐다. 그런데 서양에서 교육은 인간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e+ducere)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인간의 가능성이란 인간의 자유이다. 인간의 자유를 이끌어내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기관인 대학은 자유에 대해서 탐색하고 자유를 가르치고 자유를 확대하는 기관이었다. 따라서 대학은 생겨날 때부터 자유의 보루로서 국가와 종교로부터 인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중심이었다.

대학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매우 진부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대통령, 정치인, 교육부장관, 심지어는 교수와 학생마저 대학은 취업을 위한 기관이지 자유를 탐구하고 자유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 교육부는 총장이 CEO가 되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대학은 성과급제를 통해 교수들을 쥐어짜고 교수들은 학생들을 쥐어짜 기업들의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상이 모두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에

따라 이른바 "효율성"에 맞게 변모하고 있는데, 철없는 대학들이 여전히 자유니 진리니 고리타분한 이야기만 하면서 "경제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모두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대학만 피안의 세계에 머무를 수는 없다는 생각도 나타났다. 대학이 피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과 함께 시장만능주의라는 지옥의 맷돌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보다는 거기에서 세상을 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40여 년간 250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수준 혹은 삶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증가를 뒤따라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지난 5월 5일 발표된 한국 어린이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꼴찌를 기록했다. 역설적이게도 경제성이나 효율성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보다는 불행하게 만든다. 부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결코 확대하지 않는다. 시장만능주의가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제주대학은 졸업생을 시장에 맞춰 효율적이고 경제성 있게 만들려고 하기보다 시장이 인류에게 봉사하도록 그것을 제어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대학은 성과급제를 통해 교수들을 쥐어짜고 교수들은 학생들을 쥐어짜 기업들의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상이 모두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에

3면 이색 개교기념 행사 만들자 제주대 바로 알기		8면 개교 59주년 특별좌담 제주대가 가야할 길		2면 개교 59주년 축하메시지 5면 노무현 추모 기념, 제주특별자치도를 진단한다 6면 창간기념, 역대 편집국장을 통해 본 신문역사
제주대미디어 JUMP(Jeju Univ Media with People)				http://news.jejunu.ac.kr/

UNESCO 자연과학 분야 3관왕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도전!

제주사랑! 투표로 보여주세요.

※문 자 : 001-1588-7715 로 제주 또는 jeju, JEJU 전송

※전 화 : 001-1588-7715 연결 후 한국어 안내에 따라 투표

※인터넷 : www.N7W.com (투표방법→제주도 홈페이지 참조) ※투표마감 : 2011. 11. 10

개교기념식사

대학발전 열망 의지 모아 가능성 일구자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오늘 제주대학교는 개교 59주년을 맞았습니다. 숫자로 보면 내년이 더 기대가 크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개교 60주년을 맞게 되는 내년, 그간의 역사를 기억하고 제주대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하여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자리의 의미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변화의 시대에, 1년이라는 기간은 대학의 운명을 바꿀놓을 수도 있습니다.

개교기념일이 되면 항상 역사가 생각납니다. 제주대학교를 지금 이러한 수준까지 발전시켜 주신 그 무수한 분들, 그 무수한 사연들을 세세히 기억하고 그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주대학교를 거쳐 간 많은 교직원 선배님들, 동문, 학부형님들, 외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제주인 여러분들, 여러분의 공헌을 제주대학교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역사를 생각하는 이유는, 역시 미래를 다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60여년이라는 연륜이 소소한 것은 아니지만, 지나온 날보다는 제주대학교가 앞으로 나가야 할 날이 훨씬 장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제주대학교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기대와 책임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주대학교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내용은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연구를 국내 최고 수준, 나아가 세계 일류 수준으로 올려놓으라. 더하여, 제주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선도하고, 졸업생들을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교육, 연구의 성과를 증명해 내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적 기대에 적극 부응 의지

제주대학교는 그러한 사회적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가족 누구도 이러한 책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회적 기대가 충족될 때까지 제주대학교는 각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땀손으로, 의지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명문대학, 국내 최고의 유명대학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탓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총장으로서는 대학 구성원 모두의 혁신 및 발전 의지를 강화시키고, 그러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육·연구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의 실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는, 대외적으로 제주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취업 등을 위한 외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제주대학교는, 수도권으로 집중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실제의 능력이나 실력에 비해서 부당하게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에 대하여, 전임 총장님들을 비롯한 제주대 가족 모두가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고, 또 상당한 성과도 거두신 바 있습니다. 그런 기반 위에서 저도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전력을 기울여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제주대학교 교직원,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지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정 확보분야에서는 두 가지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발전기금 모금 성과가 157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전체 모금성과 582억원과 비교하면 27%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제 발전기금 총액은 73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발전기금 총액 1,000억원 시대를 열이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성과는 마침내 제주대학교의 R&D사업 유치실적이 연간 500억원대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엔 R&D사업 유치실적이 400억원대를 넘어 476억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5월 현재 190억원을 기록하여 500억원대를 향해 순항 중입니다. R&D사업 유치실적은 대학 연구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유치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교수님들과 관련 교직원들의 노고에 도 치하를 드려 마지 않습니다.

교육·연구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도 설새 없이 진행시켜 왔습니다. ‘대학선진화정책 실천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고, 대학 행정조직을 재설계하고 ‘교육목표체계’도 재정립시켰으며, 지금은 ‘2011-2020 제주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제주대학교 윤리경영’, ‘교원업적평가제도 개선’, ‘교원 성과급제 연봉제 기본계획 수립’, ‘졸업자적응증제

강화’, ‘장학금지 급제도 확대 및 개선’, 입학사정관 전형을 도입하는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여 확대 개편한 ‘취업전략본부’, ‘기초교육원’과 ‘국제교류센터’의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취업전략본부’는 학생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기업 CEO, 인사담당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초교육원’에서는 교수들의 교육방법을 첨단화하고,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센터’는 2014년까지 재학생 10%(1,000명)선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재학생 5%(500명)선의 해외 교류수학 파견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직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치하드립니다.

교육·연구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발전기금 성과처럼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도 힘들고, 또 그러한 노력의 성과가 단기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으로서의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대학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노력한 만큼 반드시 성과가 나타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전력으로 매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지주회사 설립, 대학벤처기금 조성 등으로,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BTL, 기술사 확대 신속, 의학전문대학원과 수의과대학의 건물 신축 등 각종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국유토지 관리전환 인수, 소유자 없는 부동산(토지) 취득, 국유재산과 공유재산(특별자치도)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과와 서암농원부지/오동동 부지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사업단의 노력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빌려 치하를 드리고, 이처럼 부동산 관리를 효율화하는 사업도 계속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40억원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인재양성관’(개교 60주년 기념관)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촉구하고 협력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대학이라는 제주대학교의 실정상, 공무원 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와 공민회계사, 변리사 등 각종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확대하고 지원하여 성과를 내는 것이 매우 실용적인 발전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취업을 제고 뿐 아니라, 제주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는 방안으로서도 매우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이 ‘인재양성관’입니다. 제주대 가족 여러분만 아니라, 제주지역 사회에서도 이 ‘인재양성관’ 건립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보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인재양성관’ 건립에 관심을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오늘 아마도 총장이 자기 실적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적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처 자랑하지 못한 실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자기 자랑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세상이 알아줄 때까지 끊임없이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닌 능력, 실적, 노력만큼 세상이 제주대학교를 알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대학교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대를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주대학교는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제주대학교 가족 모두에게 더 한 층의 노력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기념사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여건이나 환경을 탓하지 마시다. 정말 땀 손으로라도 우리 대학교를 전국 최고 수준, 세계 일류 수준으로 올려놓읍시다. 제주대학교를 거쳐 간 선배들이 바로 그렇게 패하 위해서 제주대학교를 세우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로 모읍시다. 제주대학교가 발전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발전하는 길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향진 총장

축하메시지
우근민 도지사

존경하는 허향진 총장님, 제주대학교 교육가족 여러분! 개교 5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대학교는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대학교입니다. 전국 단위 지역거점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하여 환경, 산업, 신기술 등 기능별 거점대학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에서 배출해낸 수많은 인재들은 제주발전의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대 연구진들은 R&D와 정책적인 분야에서, 제주대 졸업생들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성장엔진으로 제주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제주대학교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2011년도를 맞이하여 제주의 새로운 비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에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것입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라

축하메시지
김태환 중동창회장

사랑하는 재학생 여러분! 교직원, 학부모, 동문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대학교가 올해로 59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랜 세월 제주도민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며 지역사회를 지키고 선도해온 제주대학교의 59번째 생일을 재학생과 교직원, 동문, 그리고 제주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해마지 않습니다.

제주대는 지난 52년 5월 27일 제주초급대학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80년에는 용담동시대를 마감하고 아라동 캠퍼스로 이설을 완료한데 이어 82년에는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 승격,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제주대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 현재는 11개 단과대학에 50개 학과, 입학정원 2338명, 재학생 9584명의 거대한 조직체로 탈바꿈했습니다.

축하메시지
양길원 교수회장

우리는 해마다 기념한다. 마치 5월 27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날을 따로 챙기는 이유는, 제주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애착심을 고양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어 모처럼 하루를 쉬면서 반추하고 성찰하고 비전을 가꾸어 나갈 수 있음의 여유로움일 것이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효율성을 가장 중시하는 세상에 살게 됐다.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것인가의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대학교 가치추구나 여유로움 보다는 업적 평가와 비용 관리가 더 우선시 되는 저간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보인다.

허나 대학은 시류에 편승하면서 적당히 살아남는 데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오히려 치열함과 자긍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적응하고 뛰

축하메시지
연용탁 총학생회장

개교 5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제주대학교는 1952년 도립제주초급대학으로 출발한 이래, 개교 59주년을 맞이하는 올해까지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여 왔다.

제주대학교는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대학, 글로벌 시대의 뉴리더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명품대학을 우리 대학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육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우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대학생활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다.

참으로 정이 든 학교이다. 자연이 살아있어 사시시절 새로운 매력을 뽐

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홍릉의 2배, 서울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영토는 27% 이상을 제주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흐름과 국가정책이 지향하는 녹색성장의 정책방향도 제주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잠재력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이제 석유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주 천연 지하 암반수는 세계 최고의 먹는 샘물로 키울 수 있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예전부터 즐겨 드시던 청정 식재료는 제주의 식품산업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들도 이제 제주를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제주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태면, 지난 4월 28일 포스코와 손을 잡고 녹색성장, 해양비즈니스 등에 대한 공동사업을 시작하였습니

축하메시지
김태환 중동창회장

제주대의 발전은 이런 양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제주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데 급급했으나 이제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인재양성, 더 나아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는 세계속의 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만이 아닙니다. 제주대에 몸담고 있는 인재들의 연구성과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제주사회는 제주대의 역할을 뛸고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주사회의 현안을 풀이가는 이론적 뒷받침을 하는 싱크탱크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대를 졸업한

축하메시지
양길원 교수회장

따라 가는 게 아니라 모험하고 앞서 이끄는 게 대학이 아닐까. 물론 이는 지나치면 건방져 보이고 또 사회로부터 괴리된 상아탑으로 전락할 위험도 없지 않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요구되는 게 소통이다. 대학 혼자 고고할 게 아니라 사회와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다. 강의실 구조부터 교수와 학생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고, 연구실의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정보 교환과 검증 및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학 울타리를 훌쩍 지역 주민과 외부 세계에 널리 공여되면 금상첨화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어느 하나도 쉽지 않다. 우선 번거롭다. 관리 비용까지 생각하면 인감생심이다. 대학의 경건함과 정숙함은 사라지고 오일장 시장 같이 번잡스럽기만 할지도 모른

상호 의존하고 서로 협력해야

다. 앞으로 포스코와 10개 이상의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주수도 불분명한 기업들을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포스코와의 공동사업으로 제주도가 진정한 글로벌 경제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다면 제주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의 제주도’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주의 인재들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찾아서 제주를 떠났다면,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제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은 일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혼자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주대와의 상호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가치와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도전’ 마인드를 가진 인재, 국제감각으로 제주의 향토자원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을 발굴하고 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제주 미래의 성장엔진인 인재들을 제주대학교에서 키워주셔야 합니다.

저도 제주대학교와의 연계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대학교의 비전인 “글로벌 시대의 뉴리더, 혁신하는 명품대학”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교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제주대학교 교육가족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위상 걸맞게 책임감 갖추길



김태환 총동창회장

사회 어느 일반의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키우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모교의 59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오늘날이 있기까지 모교의 발전에 힘을 쏟으신 교직원, 동문,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에 힘쏟아야



양길원 교수회장

기존의 산학협동-관학협동에 이어 창의적 사회 회원의 길을 찾는 주 기적 기획과 모색이 요청된다. 적은 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나씩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제주사회와의 연계망 구축에 한발 더 나설 일이다. 개교의 뜻을 가다듬는 시간에, 이웃과의 소통을 통한 제주대학교의 활력 강화 혹은 도약을 꿈꿔 본다.

학생 본분 지키며 꿈을 향해 달리자



현용탁 총학생회장

가을 60번째의 개교기념을 위해 계절마저 봄에서 여름으로 달음박질 하는 오늘, 59년을 뛰어온 그 자부심과 두근거림으로 함께 내일로 달려가자.

축아메시지 김태완 공무원직장협의회장

구성원 상호신뢰 속 믿음주는 대학으로

캠퍼스의 낭만이 가득한 5월, 교내에 넘실거리는 각종 현수막이 축제의 계절임을 실감케 한다. 우리 대학교가 개교 59주년이 되었다. 4·3과 한국전쟁의 참혹한 환경 속에서 도립제주초급대학으로 출범하여 도립대학으로 10년, 국립(단과)대학으로 20년을 거쳐, 이제 국립종합대학교로 30년의 연륜을 쌓으면서 의미 있는 개교 60주년을 바라보게 되었다. 제주 대학교의 태동에서부터 발전과정까지 애를 쓰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그동안 제주 고등교육의 햇불이 되어 59년의 세월 동안 도민과 함께 온 우리 대학교가 '지역사회의 미래를 리드해가는 지역지점대학' '기습 따뜻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전인교육대학' '앞선 지식과 기술 개발로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연구중심대학' '지구촌 인재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글로벌대학'을 목표로 '글로벌 시대의 뉴 리더, 혁신하는 명품대학'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세계의 명품대학으로 나아가고 있다. 59회 개교기념을 맞이하여 세계의 명품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우리 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한축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글로벌시대의 명품대학'이 걸치레 구호가 되지 않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동참을 위한 동의나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구성원들 간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할 때 쌓이는 신뢰가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의 자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인 정부의 국립대학법인화 추진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추진도 우리 대학교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구성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대학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적극 동참해 나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갈 것이다.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확신과 믿음이 있는 대학, 제주의 발전을 선도하는 제주대학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대학교 구성원들이 진정한 명품대학을 위하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다.

공무원직장협의회원을 대표하여 개교기념을 축하하고 제주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김태완 공무원직장협의회장

알 림

제31회 백록문학상 소설 부문 추가 공모

제주문학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길 '백록문학상' 제31회 출품작을 연장 공모합니다. 제주대신문 창간 57년을 기념하고, 청년 문학도를 발굴하기 위해 별이는 이번 추가 공모에는 소설 부문에 학부학생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백록문학상'에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응모분야 : 소설 (1인 1편·분량은 자유)
- 접수마감 : 6월 13일 (월) 18:00까지
- 발 표 : 제주대신문 855호 (7월 6일자)
- 시상내역 : 각 부문 당선작 (50만원), 가작 (30만원)
- 방문할곳 : 본관 대학원동 (취업전략본부) 3층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
- 문 의 : (064)754-2278

제주대학교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간 고평성 편집국장 강보배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대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 미디어<JUMP> news.jeju.ac.kr

개교 제59주년 기념식 행사... 오는 26일 아라뮤즈홀

현승탁 회장 발전기금 기탁... 고경환 교수 등 91명 표창

제주대학교가 오는 26일 오전 11시 아라뮤즈홀에서 개교 59주년 기념식을 열고 장기근속자 등에 대해 시상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현승탁 (주)한라산 회장이 2천만원의 발전기금 전달과 발전기금 유공인사 감사패 수여, 장기재직자 및 공로 유공자 91명에게 근속·유공표창 및 감사패가 전달된

다.

이밖에 기념식 행사 직후 그랜드호텔 크리스탈룸에서 대학발전 유공인사 초청 리셉션을 연다.

이날 기념식에는 현승탁 (주)한라산 회장이 2천만원의 발전기금 전달과 발전기금 유공인사 감사패 수여, 장기재직자 및 공로 유공자 91명에게 근속·유공표창 및 감사패가 전달된

다. 이밖에 기념식 행사 직후 그랜드호텔 크리스탈룸에서 대학발전 유공인사 초청 리셉션을 연다. △장기재직 표창 △30년-고경환, 권인혁, 정대연, 고영철, 고부인, 문원석, 변종민, 윤정수, 고양숙, 이혜선, 이세형, 이창준,

정덕상, 김귀식, 이용학, 현종익, 김인규, 강성진, 양창남, 이명희, 진창기, 김태웅, 문정희, 김희선, 고은숙, 강경호, 고창승, 이상형, 김운성, 진찬경, 강병기, 김미정, 강양숙, 문영실, 고영임, 양숙희, 고복희 △20년-허남춘, 천영수, 김찬식, 이기호, 김혜연, 김정숙, 강창희, 강정숙, 변상웅, 고성택, 김일환, 이개명, 이호연, 이상백, 전성수, 박현영, 최태희, 윤치부, 임윤규, 이두식, 배종희, 박전홍, 양진건, 진순화, 이수인, 김문규, 서영진, 김경훈,

고원복, 강철승, 진승완, 허정임, 강건호, 고명자, 양순정, 현길순, 현창철, 오정열, 김기대, 송영호, 양순미, 한창복, 박경아, 현정순, 강택경, 오명하, 김미경

◇우수교사 표창-하명금, 강보원, 김영희

◇외부유공인사 감사패-신영근 제주대학교기성회 전 회장, 고점유 총동창회 부회장, 이창훈 총동창회 운영

뜨거웠던 단과대학 체육대회 결과

아라캠퍼스가 5월 단과대학 체육대회와 대동제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지난달 25일 자연과학대학을 시작으로 대운동장 및 체육관, 한라터 곳곳에서 진행됐다.

각 단과대학 학생회 주체로 열린 체육대회는 △생명대 4월 27~28일 △법정대 5월 3~4일 △인문대 5월 11~12일 △경상대 5월 16~17일 △해양대 5월 19~20일 순으로 열렸다. 5월 30~31일에는 공과대 체육대

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다른 단과대학은 2학기에 체육대회가 열릴 계획이다.

다음은 체육대회 결과 △자연대-체육 우승, 생물 준우승 △생명대-식물자원 우승, 원예 준우승 △법정대-정치의교 우승, 법학 준우승 △인문대-중어중문 우승, 사회준우승 △경상대-경영 우승, 회계준우승 △해양대-수산생명 우승 산업경찰, 준우승

종합승마타운 설치

15억 총사업비

제주대학교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승마교육 컨트롤센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종합승마타운 설치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종합승마타운은 아라캠퍼스 부지 내 6만737㎡에 국비 7억5000만원 등 총사업비 15억원을 들여 다목적 실내마장, 주로시설, 마사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종합승마타운은 승마전문인력 양성센터의 기능과 국내·외 승마대회 유치, 재활·생활 승마장의 기능을 겸비한 도민의 레저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승마 지도자, 마필관리사, 장제사 등 전문 인력이 배출돼 제주 마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전문인력 배출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론과 실습을 겸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허항진 총장이 OECD 비디오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김군석 학생을 격려했다.

김군석씨 OECD 비디오 경진대회 20위권 진출

김군석(전산통계 3)씨가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50주년 신세대 비디오 경진대회'에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20편을 선정하는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됐다.

OECD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연 비디오 경진대회에서 김군석씨는 "Progress is to make it possible"를 제목으로 한 작품을 출품해 최종 본선 진출작 20편에 선발됐다.

허항진 총장은 지난 19일 김군석씨에게 제주대학교의 위상제고에 노력한 공로를 격려하는 한편,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당부했다.

김씨의 출품작은 아쉽게 최종 수상작 3편에는 들지 못했지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김씨는 주OECD 한국대표부 초청으로 'OECD 5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한다.

뉴스 클리핑

법정대학, 구라도서관(口羅圖書館) 개관

법정대학(학장 고영철)은 학생들을 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구라도서관을 완공하고, 지난 18일 개관식을 열었다.

6개월간의 공사 끝에 법정대학 2층에 개관한 구라도서관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독서와 학교과제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무인관리된다.

고영철 학장은 "한글로 구라는 흔히 '거짓말'을 대신 쓰는 일종의 비속어지만, 한자로 구라(口羅)는 입에서 술술 쏟아져 나오는 비단처럼 아름다운 말을 의미한



지난 18일 법정대학이 구라도서관을 개관했다.

다"면서 "학생들이 구라도서관을 안방처럼 드나들어 수천 권 책 속의 전설적인 인물들이 될 것이라 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여교수회,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여교수회(회장 광영숙 교수)가 제주지역 다문화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제주대 여교수회는 지난 17일 오후 제주대 교수회관 회의실에서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정우)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제주지역 다문화가족들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여교수회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의료지원(제주대 건강증진센터 공미희 교수), 법률서비스지원(제주대 거주외국인 리걸클리닉센터 박선아 교수)과 초등학교 자녀 과학교육지원(제주대 WISE센터 지영훈 교수)을 제공하게 된다. 또 5월 가정의 달과 10월 다민족문화해 주간에 맞춰 2차



지난 17일 여교수회와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례에 걸쳐 법률, 의료 자문서비스를 시행하고, 통번역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29일 이틀간 열리는 제주다민족문화제에 여교수회는 행사 부스를 마련하여 의료지원 서비스와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농 협에는

농협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의 우리 농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더 힘이 되는 든든한 친구, 농협-

‘같이의 가치’를 소중한 여기에서

농협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두글자 [같이]의 힘을 믿습니다

같이의가치 NH 농협

50년을 넘어
다함께 미래로



“지역자원 이용한 내생적 개발에 관심가져야”

‘제주특별자치도의 진단 및 전망’ 주제

노무현 대통령 2주기 토론회

노무현 대통령 2주기 제주지역추모위원회는 23일 오후 제주시청 열린정보문화센터 6층 세미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진단 및 전망’을 주제로 노무현 대통령 2주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여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양영철 행정학과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와 노무현 대통령’을 발표했다. 이어 고충석 전 총장이 좌장으로, 고유기(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 오경애(제주YWCA 이사), 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오인택(전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 이재홍(제주의소리 편집국장), 장성철(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씨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다음은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했다.

◆ 기조강연-참여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구상(김병준 국민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망해 볼 때, 제주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주목받는 지역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언제나 정부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작지만 뚜렷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해방이후 정부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대륙과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가진 제주를 타지역과 구분하여 특화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정부의 생각은 60년대 ‘자유항 구상’을 시작으로 70년대 ‘국제관광지 개발전략’, 80년대 ‘국제자유도시 구상’으로 이어졌다.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제주지역의 과거 구상들을 중심으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바탕으로 제주는 국내 굴지의 관광지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제주가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로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 원인으로는 섬이라는 태생적 특성과 취약한 경제구조, 자치역량의 미흡 등을 들 수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전국적인 형평성을 내세워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특례만을 부여하고, 제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차별화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한계를 깨닫고, 제주를 지방분권과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된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하여 살자는 모

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궁극적인 출범목적은 진정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이다. 진정한 주민자치는 주민에 의한 지역행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주민에 의한 행정이 이뤄지려면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서는 안 되고 지방으로 권한이 분산돼야 한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때 지방자치는 활성화되고 주민자치의 기틀이 형성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은 기존의 지방분권의 수준을 뛰어넘어 ‘광장지 수준 높은 자치도, 일종의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를 만들어보겠다’하려는 의도가 있다.

‘분권화’란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지역간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권화 차원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특수성을 가지고 독자성이 강한 제주를 우선적으로 ‘자치모범 도시’로 육성하여 이상적 분권모델의 선도지역으로 만들어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시키는 것이 제주의 꿈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은 제주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주는 이미 2002년도에 제정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돼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각종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모든 권한이 각 정부 부처에 분산돼 있어 특정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동안 제주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원천적인 문제점과 장애물을 제거하여 제주도가 전세계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국제도시가 되어 ‘국부의 전진기지’가 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 꿈꾸는 모습인 것이다.

◆ 주제발표-제주특별자치도와 노무현 대통령(양영철 행정학과 교수, 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발은 제주도민의 힘으로 제주를 차별화하면서 개발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그 목표는 국제자유도시였다. 국제자유도시는 시장은 크고, 규제를 수단으로 삼는 정부는 적은 지역이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제주도민은 자율권을 최대화해 달라



지난 23일 오후 제주시청 열린정보문화센터 6층 세미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진단 및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는 요구를 정부에 요청했고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

물론 정부는 원래 출발 때 약속한 바와 같이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하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모두 이관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진전을 막고 있는 주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자치권이 클수록 중앙정부의 의존비율도 줄어야 한다는 점에서 행·재정적 취약함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전한 국제자유도시의 성격을 구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덕분에 제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도민의 자율권을 더 가지고 있다. 그동안 이 권한을 수행하는 경험도 어느 지역보다 많이 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도 더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큰 국제행사는 제주도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인식이 들 정도가 되었다. 초심을 점검해 보면 또 다른 희망과 자신감이 생겨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제주개발의 양태를 보면 자본이 크면 클수록 환영받고, 특혜를 받는다. 외국자본이면 무조건 받아들일 만큼 외자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규모도 대형일수록 개발답다고 생각한다. 높은 빌딩이 들어서고 대규모 토지를 개발하여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제주개발의 모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주의 최대 자본이라고 하는 환경은 외자 또는 대형자본이라고 하면 파괴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제는 정리가 된지 오래다.

강정의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환경의 마지막 보루인 절대보존지역도 서슴없이 풀어버리는 당국과 이를 일사 처리하는 의회, 이를 절대 지지하는 많은 도민들이 있는 현

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은 결국 죽은 개발이 되고 있음을 세계 개발사가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의 최종 목적은 지역주민의 잘사는 지역이 되는 내생적 개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외자유치, 대형위주의 개발도 이 방향을 훼손하거나 방해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이양과 제도개선도 내생적 개발을 강화하는 제주지역 개발목표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점검하면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 도입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제도만 가져오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4천여개의 권한과 제도를 위임이나 이관을 받아왔지만 실적은 그 숫자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도는 경직성이라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과 같이 속도가 중요한 세계화, 정보화시대에는 제도는 차라리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은 곳에도 왜 외자유치가 더욱 활발하고,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외국학교들이 건립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곧 제도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제도가 필요없다는 주장은 아니다. 제도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는 것이다. 특히 완벽한 제도만을 추구하고 그 제도의 이관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자세는 지역개발에 있어서 가장 나쁜 행태라는 지적일 뿐이다. 그래서 제도보다 실천이 우선이며, 실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제도로 만들어가는 동시적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전략이다. 정몽복 언론미디어임장

“창조적 상상력으로 최초로 도전하라”

김영환 국회의원 특강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국회의원이 ‘창조적 상상력’을 주제로 지난 20일 공과대학 4호관 강당에서 특강을 열었다.

김영환 의원은 15대, 16대 국회의원, 제3대 과학기술부 장관,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연세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였고,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과학기술부장관으로 발탁되어 풍부한 아이디어와 정책개발로 성공적인 장관직을 수행했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 제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실물경제와 산업,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다음은 강연 내용을 요약했다.

불타버려 아무도 쓰지 않아 폐허가 돼 버린 디스코나이트클럽에 인테리어 장식용 자재를 쓰지 않고 지었다. 특히 블라인드를 쓰는 대신 답을 세울때 쓰는 벽돌을 이용해서 ‘블록 블라인드’를 만들었다. 빛이 진료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채광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또, 칸막이를 사는 대신 건축용 파이프를 이용해 칸막이로 만들었다.

나는 시인이기도 하다. 불우했던 내 어린 시절이나 가족사에 대해 쓰기도 했고 주위 친구의 죽음 같이 지인들의 이야기를 시로 쓰기도 한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1인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한다. 국회소식이나 사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의 진솔한 말을 담은 영상자서전, 현장중계를 하는 등 국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김영환 국회의원

‘Something different. Doing first’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뭔가 다른 일 해라, 일단 시도해라)

마크 주커버그는 하버드대 기숙사에서 웹사이트로 페이스북을 창업했고, 빌게이츠는 대학을 중퇴하고 나서 동업자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했다. 스티브 잡스는 리드 칼리지를 중퇴하고 자신의 양아버지의 차고에서 애플을 만들었다. 이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마크 주커버그, 빌게이츠, 애플 최고경영자 스티브 잡스는 모두 자신의 삶을 21살에 개척하기 시작했다.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대학은 치과대학을 들어갔다. 입학을 했지만 학생운동으로 구속되어 20개월간 투옥생활을 보냈다. 15년 동안 대학생 신분이었다. 내가 치대생 최초의 학생운동 가담자였다. 두 번 제적당하고, 세 번을 복학했다. 내 처조카가 양현석 유명 엔터테인먼트 대표인데 ‘미친 인맥’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기사가 났다. 그 친구가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팀에 들어가기 전 연습생 시절에 불려서 “제발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해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친구가 성공하고 나니 내가 한말이 부끄러워졌다.

치과의사 동료들이 내가 한옥치과를 열어서는 안 될 100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나는 성공할 것을 확신했다. 병원이 꼭 서양식 건물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결국 성공했고 내 판단이 옳았다. 한옥치과는 전통과 첨단이 결합된 최초의 한옥치과이다. 주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일상적인 것을 상상하면 비싼 것이 된다. 또 한번 나는 창고형 병원을 열었다.

김명지 수습기자

“서점에 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주대 구내 서점은 단순한 책 전시장이 아닙니다. 대학인의 문화공간이며 정보화 문화 유통의 장소입니다. 제주대 구내 서점은 지식과 정보와 문화상품인 도서를 거래하는 만큼 손님에 대한 무한책임을 느낍니다. 대학인들의 꿈이 이뤄지도록 제주대 서점이 힘을 함께 하겠습니다.

문 의 : TEL 754-2383, 726-6035
FAX 726-6036
E-mail book6035@korea.com

제주대학교 구내 서점



무론유설

정 대 연
사회학과 교수

인간은 수렵채취사회와 농업사회를 거쳐 산업사회를 출현시켰고, 지금 정보화사회로 가고 있다. 산업사회는 물질적 풍요성과 생활의 편리성 증대를 최고의 발전목표로 설정하여 출현하였고, 사회체제도 풍요성과 편리성 증대에 가장 효율적으로 구조화시켰다.

산업사회의 명과 암

인간은 자연에서 자원을 추출하여 재화와 용역으로 생산하고, 생산된 재화와 용역은 유통을 거쳐 소비하는 과정을 통해 풍요성과 편리성을 누린다. 이 과정에서 배출된 각종 폐기물은 자연으로 되돌아간다. 이 결과 자연은 자원고갈, 원래 질의 오염·파괴, 폐기물 흡수·처리의 한계 등을 당면하여 자기 조절체계가 붕괴되어 기후변화, 사막화 등 각종 재난과 재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들을 묶어서 환경문제라고 한다.



독자기고

이 의 희
관광경영 석사과정

아마도 한비야씨의 책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독특한 문체나 간결한 문장, 또는 책 속에 있는 귀가 솔깃케 지는 경험담들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일명 ‘한비야시리즈’를 다 읽은 애독자의 견해로 짐작컨대 한비야 시리즈의 인기는 독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시대적 진정성’과 그것을 온몸을 내던져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비야씨의 책박·지도 밖에서의 행보에 있을 것이다.

한비야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한비야에세이 ‘그건, 사랑이었네’를 지난 봄에서야 읽게 되었다. 고등학생시절 한비야씨를 알게 되고부터는 한비야시리즈는 출판되자마자 바로 사서 읽었는데 이 에세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출판된 지 거의 2년이 다되어서야 그것도 직접구매해서가 아니라 지인으로로부터 선물 받아 읽게 되었다. 2010년 봄에도 이 에세이를 친구로부터 선물 받을 뻔 했다. 내 웅인즉 새해를 맞이하고 처음만난 삼총사 멤버 중의 한명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와서 나와 나머지 한명의 친구에게 선물해 줬는데 이 에세이와 다른 한편의 책(공중그네)을 사가지고 와서는 알아서 고르라고 하는

따라서 풍요성과 편리성의 증대는 자연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오늘날 환경문제는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각하다. 그 심각성을 측정하는 종합적 개념이 지구의 환경용량(carrying capacity)이다. 지구는 인간이 풍요성과 편리성 증대에 필요한 자원을 무한정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인간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무한정 흡수·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다. 이것은 마치 배가 승객을 실을 수 있는 정원이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을 지구의 환경용량이라고 한다.

현재 지구의 환경용량은 2.5배 초과되어 있다. 이것은 정원 100명의 배에 250명이 승선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한국은 9.5배 초과되어 있고, 제주도는 3.1배 초과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지구를 2.5배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재 수준의 풍요성과 편리성을 즐기기 위해서는 지구와 모든 조건이 똑같으면서 크기만 2.5배 더 큰 별을 찾아서 그곳으로 65억 인구가 이민을 가야 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지구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첫 번째

방법은 현재의 생산량을 3분의 1 감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원추출과 폐기물 배출이 3분의 1 감축되어 지구의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대신 풍요성과 편리성 수준도 3분의 1 감소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감내해야 한다. 인간에게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방법은 65억 인구 가운데 20억을 죽이면 된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원추출량과 폐기물 배출량이 3분의 1 감축된다. 남아 있는 45억은 환경문제 없이 현재 수준의 풍요성과 편리성을 누릴 수 있다. 이 방법은 누구를 죽이느냐의 문제가 있다.

두 방법 모두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구는 정원을 2.5배 초과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항하는 배와 같다. 이 배는 조만간 전복된다. 언제 전복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있다.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복의 징조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수준의 풍요성과 편리성을 누리는 데 필요한 자원공급 능력은 200년 후 상실, 사막화,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 해수면 1m 상승 등이다. 제주도의 경우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중앙

로까지 바다가 되어 남문로타리에서 낚시를 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변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이 향후 사회발전 이념으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제창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그 개념과 함의가 복잡하지만 한 마디로 말하면, ‘풍요성과 편리성 증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과거와는 달리 지구의 환경범위 안에서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후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사회(sustainable society)로 수정·보완되었다가 2000년대에 와서는 생태적 근대화(ecological modernization)로 대체되었다.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해 정부는 환경정책, 기업은 녹색경영, 시민단체들은 환경운동,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 행동, 유엔은 범지구적 차원에서 국가간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 주체 모두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남문로타리에서의 낚시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건, 사랑이었네』를 읽고

을 상해시켜준 시대정신 또한 분명히 공존하고 있었다. 조금은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우리네 청년들이 사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을 한비야씨가 말한 ‘사랑’에서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난 내가 마음에 들어’로 시작하는 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비야씨는 자신의 소소한 행동과 일상에도 사랑을 주고 있었다. 그렇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긴급구호팀 팀장으로 일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아무런 죄 없이 가난이라는 병마와 싸우며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도 다시 일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몸과 마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었다고 했다.

요즘을 경제위기와 청년실업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꿈과 희망에 가득 차 있어야 할 청년들이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나는 내 자신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먼저 우리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고 철저히 자기자신과 우리네 삶에 주어진 시간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사랑’이 꼭 전 인류애적이고 타애주의적일 필요는 없다. 먼저 자기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 남는 ‘사랑’이 있다면 그때 주위를 둘러보아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하면 굳이 한 비야씨처럼 ‘네티즌이 만나고 싶은 사람 1위’, ‘여성특위가 뽑은 신지식인 5인 중 한 명’, ‘평화를 만드는 100인 중 한 명’, ‘2004년 YWCA 젊은 지도자상 수여자’가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인생의 새로운 문 앞에 선 청년들에게 전력을 다해 사랑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을 사는 청년들 개개인이 전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근원적인 힘이 ‘사랑’이다. 한비야씨는 이 책을 통해 그것이 꼭 고상하거나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네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원동력이 저마다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건, 사랑이었네』 한비야 저 / 푸른소 펴냄

동문칼럼

제주대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대학의 몰락』의 저자 서보명 교수는 ‘식상’한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경쟁 사회에서 ‘생산성 높은 학생’들을 만들어내는 대학은 이미 존재 가치를 상실했기에 시대에 뒤떨어진 질문이 됐다고 이야기한다.

지금의 대학은 취업을 위해 이력서 한 줄 메울 수 있는 곳으로 변질되고, 공부는 토플·토익 점수를 높이거나 공무원 시험 예상 문제를 풀이하는 곳으로 전락했다.

스펙에 함몰된 대학생

도내 유일의 4년제 국립대학교인 제주대학교를 떠올린다. 제주대는 허형진 총장 취임이후 취업률 ‘7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지난해엔 7년여만에 전체 학과장 회의를 열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의건을 수렴하기까지 했다. 또한 취업전략분부를 가동, ‘책임지도교수제’ ‘취업코디네이터 교수’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등 취업을 끌어올리기에 ‘울 인’했다.

‘취업’에 갇힌 대학내에 인간, 이상, 진리와 같은 ‘한가한 주제’들에 대한 고민이 설 자리는 없다. ‘학문의 전당’ 대학에서 발표와 질문, 토론의 장면은 사라진 지 오래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영학부 ‘노동의 미래’ 과목 담당 김영곤 강사는 <한국일보> ‘질문이 사라진 교실’ 기사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암기형 시험에 강한 이른바 ‘고스펙 인재’가 각광을 받자 대학은 기능적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비판적 사고가 바탕이 된 토론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글픈건 청춘 역시 ‘취업’에 갇혔다는 것이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스펙’을 쌓지 않으면 여지없이 낙오되는 정글에서 ‘잉여’가 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존재다.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엄기호) 1년 365일, 스타디움·공모전·해외연수 등등. ‘스펙’ 쌓기로 바쁘다.



오경희 (언론홍보 04학번)
제주도민일보 기자

그러나 이들을 탓할 수만은 없다. 지금의 20대는 ‘불안’을 먹고 산다. 부모 세대가 ‘젊은’ 나이에 정리해고를 당하는 모습에 놀라 수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불안으로 채우고 있다. 오늘날 20대에게는 유보할 현재의 보상 따위가 없다. 과거에 대학생 집단은 비교적 안정적 미래가 보장된 사회 엘리트 집단이었지만, 지금의 대학생 집단은 청년실업에 항상 불안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다.

비판적 사고가 먼저

본질을 잃어버렸을때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되묻는 질문은 필수다. 『대학의 몰락』의 저자 서보명 교수는 ‘원점’으로 되돌아 갈 것을 강조한다. 철학 교수인 저자는 대학을 개혁할 프로 그램이나 이념을 앞세우기 이전에, 과거의 대학이란 어떤 곳이었는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질문을 과거엔 대학의 본질과 사명·성찰과 비판의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논의했다면, 과연 이 시대에 적합하고 수용 가능한 본질과 사명은 무엇인지 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물음을 던지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시대가 잃어버린 대학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묻는다. “제주대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독자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학내외의 이슈에 대한 주장, 대학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 등 자유주제로 글을 보내주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대학과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신문에 게재된 독자기고에 대해 원고료 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press@jejunu.ac.kr입니다.

대한민국 광복 66년
제주일보 창간 66년

1945년 10월 1일 광복의 기쁨으로 향토언론의 햇불을 들고
도민의 눈과 입과 귀가 되어 슬픔과 아픔을 증언해 온 66년입니다.
제주일보의 지난 66년은 바로 제주도민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이 있고 제주가 있는 한
제주일보가 해야 할 사명은 영원할 것입니다.



제주일보시

본 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324-6(도령로 126)
대표전화 (064)740-6114, FAX, (064)742-2004
http://www.jejunews.com

서울지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705호
TEL, (02)784-3461, FAX, (02)786-2761



“자부심과 긍지 살려줘야 제주대가 발전한다”

개교 59주년 대학발전 좌담회

제주대신문은 개교 59주년을 맞아 대학 구성원들의 좌담을 통해 제주대학교의 발전방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이날 ‘대학발전 좌담회’는 20일 제주대신문 편집국에서 강보배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참석자
김동욱(회계학과) 교수, 김태완 공무원직장협의회장, 홍영기 동아리연합회장·경제3, 양미래(미술4) 학생, 김신철(언론홍보) 졸업생

사회 : 현재 제주대의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하는가



홍영기 동아리연합회장

홍영기 : 제주대는 제주에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서 인재를 양성해 제주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취업이나 연구역량 등은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본다.

양미래 : 제주대가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 받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타대학에 비해 낮은 등록금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콘텐츠는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화광장이나 JDC 대학생 아카데미 등 학생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 많다.

김동욱 : 만약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봤으면 한다.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귀중함을 모르는 것 같다. 제주대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급 인력들을 받아들여서 경영하고 있다. 물론 자긍심을 느껴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하지만 제주에 있으면서 제주대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하면 발전이 더디다. 제주대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 후에야 제주대가 발전할 수 있다.

사회 : 제주대가 저평가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낮은 취업률이다.



김동욱 교수

김동욱 : 제주는 현실적으로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제주 자체의 산업구조가 취약한데다가 대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도전할 만한 직장이나 사업체가 별로 없다. 또 제주도에서 내놓은 일자리 창출도 나눠먹기 식이어서 대학생들이 지원하지를 않는다. 결국은 제주도가 어느 정도 개발을 이뤄 양질의 일자리들을 만들어 줘야 취업률도 오를 수 있다.

김신철 : 학생들 스스로가 도전의식이 부족한 것도 한 몫하는 것 같다. 지방대 출신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외부지역 기업에는 잘 도전하지 않는다. 제주도에 일자리가 한정적인데 외부로는 나가지 않으면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양미래(미술4)

양미래 : 학생들이 처음부터 너무 좋은 일자리만 찾는 것 같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비교적 월급은 적지만 자신의 실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직장부터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점검해보고, 더 나은 직장으로도 전해야 한다.

사회 : 제주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대학의 특성과 수준을 평가한다면 김동욱 : 제주도를 대표하는 특성과 분야가 바로 관광과 아열대, 해양 등이다. 이 특성과 분야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이라는 여건이 이런 부분을 방해한다. 국립대학은 기본 목적이 다양한 학문을 다루는 것이다 보니 쉽게 학과 인원을 늘리거나 줄이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특성과 학과를 강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김태완 : 제주대는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특성화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 해양대학이나 경상대학의 관광개발학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틀은 갖춰져 있지만 아직 빛을 발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김신철 : 특성화를 함에 있어 인문학이나 기초과학 같은 기초학문이 소외 받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아무리 특성화가 중요하지만 본시 기본 역량이 갖춰져야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사회 :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 등 3주체의 화합이 중요하다.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가.

홍영기 : 최근 학생중앙자치기구에서 대학발전협의회 구성을 대학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대학발전 과정에 대해 학생들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학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진다면 학생



지난 20일 제주대신문사에서 개교 59주년을 맞아 대학발전 좌담회를 진행했다.

들 스스로도 대학이 발전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태완 : 3주체의 화합을 위해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가 배려하고 신뢰했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존이구동의 자세가 필요하다. 존이구동은 서로가 다른 사실을 인정해서 그 중에서 같은 점을 찾는 것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화합한다면 어떤 어려운 일도 곧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신철(언론홍보) 졸업생

김신철 : 대학에 들어와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나 목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 이런 고민들로 인해 대학 생활을 즐기기도는 쫓겨 다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에 애정을 쏟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자신의 방향성을 잡아 그 속에서 대학이 자리 잡고 그 조화 속에서 대학에 애정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들과 직원들이 학생들의 주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 학생들도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대학을 졸업장 따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좀 더 생각해 보고 어떻게 성숙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사회 : 참가자분들이 생각의 대학의 가치와 우리대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해 달라

김동욱 : 실수를 두려워 하지 말고 도전하라. 젊었을 때의 실수는 아름답다. 나중에 큰 자산이 될 수도 있다. 맛있는 실수를 하면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도력을 갖췄으면 한다. 직장생활에서 자기기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

다. 표현능력에 대한 훈련이 청소년기인 중고등학교 때부터 돼야 하는데, 대학에서라도 제대로 배워야 한다. 대학생활을 통해 자기자신을 표현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등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주대학교가 오고 싶은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캠퍼스가 아름다워서, 어떠한 학과가 좋아서 등 무엇인가 한가지 이유를 갖고 학생들이 입학하고 싶은 대학이 됐으면 한다.



김태완 공직협회장

김태완 : 졸업생이나 직장퇴직자, 원로 교수들이 나중에 학교를 방문했을 때 포근하고 따뜻한 대학이 됐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구성원 신분일 때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직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교수로서

의 본분을 다한 후에 나중에 학교를 방문했을 때 ‘내가 있어서 멋진 곳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양미래 : 졸업을 한 후에도 대학발전기금을 내고 싶은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대학이 됐으면 한다.

홍영기 : 지역거점대학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학이 돼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함께 우리대학도 발을 맞춰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대학이 됐으면 하고, 확실하게 지역의 대표성을 가졌으면 한다.

정리 = 장효주 수습기자

만화로 배우는 제주어

③ 가달춤

글/ 김순재(국어문화원)연구원
그림/ 허용준 특별기자

저디 가달춤 허명 소리 허는 아이덜도 가수가?

가수신디 가달춤이 뭐우과?

할머니? 가달춤이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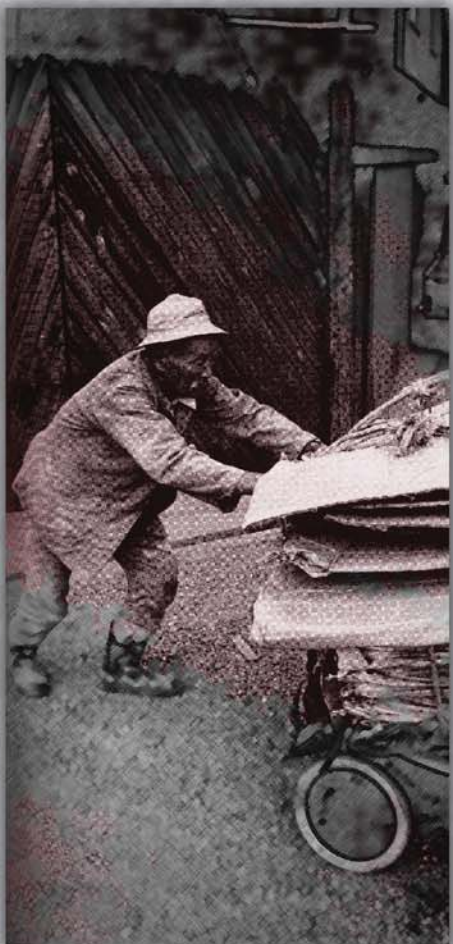
저영 날뛰명 노는 걸 말하는 거여, 경언디 날 모리는 무신 날인진 알람서?

예, 개교기념일.

노는 날이래 빈둥빈둥 말랑 호교 역사도 찾아보곡.....

알아수다

***날말풀이**
가달춤: 야단스럽게 뛰놀며 장난하는 일.
뛰우과?: 뭘 닮았?, 저영: 저렇게, 날뛰명: 날뛰면서, 경언디: 그런데, 날: 내일, 찾아보곡: 찾아보고



고향에 대한 한없는 사랑, 그 뜨거운 헌신과 실천 이제는 우리가 답해야 할 때 입니다.
우리가 뒤돌아봐야 할 제주인의 초상이 재일제주인센터에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濟州大學校 在日濟州人センター | Tel. +82-64-754-3976, 2846 |

